

올 추석 선물, 실용성 있는 상품권·과일세트가 ‘대세’

롯데멤버스, 선물구매 예정자 설문
상품권 선택 전년대비 3.4% 늘어
건기식 33%, 정육 32% 등 순서
고려 요소 실용 40%, 안전 22%

올해는 추석 선물로 실용적인 상품권과 과일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구매 계획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추석 구매 예정인 선물(중복응답)로는 상품권(37.7%)과 과일 선물세트(37.7%)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종류(중복응답)를 묻자 여전히 지류(69.6%) 응답률이 제일 높았지만 모바일 상품권(57.0%) 응답률도 높았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호도는 20대와 30대가 각각 67.1%, 56.7%로 40대(54.7%), 50대



이상(48.9%)보다 높았다.

뒤를 이어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33.0%), 정육 선물세트(31.6%), 가공식품 선물세트(23.2%), 주류 선물세트(16.6%), 전통식품 선물세트(16.2%), 일상생활용품 선물세트(16.2%), 커피·베이커리 선물세트(12.8%), 수산 선물세트(12.6%), 건조식품 선물세트(11.9%), 위생용품 선물

세트(6.7%) 등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물가 상승이 이번 명절 선물 금액과 품목, 개수 등에 두루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으며, 추석 선물 구매 시 가격 외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차례대로 실용성(39.6%), 신뢰성·안전성(22.1%), 고급성(11.8%), 구성의 다양성(9.8%), 패키지 및 포장(8.6%), 친환경성(8.1%) 이라고 응답했다.

롯데멤버스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실용성을 고려한 선물이 인기”라며 “이와 관련해 상품권 구매액이 늘고 있다. 작년 추석 대비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롯데멤버스에 따르면, 작년에 진행한 추석 선물 구매 계획 조사 대비 상품권을 선택한 이들이 3.4% 늘었다. 또 롯데유통채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

액이 2020년 대비 지난해 1.4배 가량 늘어 해가 갈수록 상품권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됐다. 이 외 주류(3.2%), 과일(3.1%), 건강기능식품(2.1%), 정육(2.8%), 가공식품(1.9%) 등 선물 구매 의향도 작년 추석 보다 늘었다.

선물 가격대(중복응답)로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31.0%)’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25.0%)’,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22.6%)’,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10.0%)’,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7.7%)’이 그 뒤를 이었다.

롯데멤버스 관계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을 선택한 응답률은 1%대로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상의, 尹 ‘무탄소 연합’ 제안에 “적극지원” 2000만원대 전기차 ‘더 기아 레이 EV’ 출시

윤 대통령, UN총회서 기조연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기업 미래먹거리 새 지평 열어줄 것”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arbon Free) 연합’ 결성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간 기후대응 격차 해소에 의지를 밝혔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원전·수소 등 고효율 무탄

소에너지(CFE) 확산을 위한 전 세계 오픈 플랫폼 CF 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CF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발, 기후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세 분야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이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에 대해 경제계도 깊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원전, 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포함하는 무탄소에너지(CFE)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더 현실적이고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부회장은 “CF연합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 분야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중립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링크웨어, 사고 충격시 차량번호 즉시전송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1’ 출시

링크웨어가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의 객체 인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딥 러닝 기술을 적용한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1(사진)’을 출시했다.

21일 링크웨어에 따르면 ‘아이나비 QXD1’은 자율주행 플랫폼인 암바텔라 CV기반 객체 인식 알고리즘과 스스로 데이터를 조합·분석해 학습하는 딥 러닝 기술 바탕인 ‘아이나비 Vision A.I’를 탑재한 최첨단 블랙박스다.

‘아이나비 QXD1’에 장착한 ‘아이나비 Vision A.I’는 주차 녹화 시 차량에 다가오는 사람, 바이크, 자전거 등 객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분석한다. 또한 차량에 대한 실제 위험과 거짓 위험을 판단하고 분석해 필요한 상황만 정확하게 녹화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사고로 충격이 발생하면 인식된 차량 번호와 함께 충격 알림을 스마트폰으로 즉시 전달해 사용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능도 ‘아이나비 Vision A.I’와 접목해 더욱 강화했다.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도로 위 모든 객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잠재적 위험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더불어 교통안전 시설물 인식, 속도 위반 및 버스 전용 차로 알림, 우회전 일시정지 등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도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운전을 보조한다.

여기에 기존 기능인 ▲차선을 벗어날 경우 알려주는 ‘차선 이탈 감지 시스템(LDWS)’ ▲신호 대기 및 정차 중 앞차가 움직일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앞차 출발 알림(FVSA)’ ▲전방 차량과 안전 거리를 인식해 추돌 위험을 알려주는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FCWS)’ ▲운행 중 신호 대기 상황에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신호 변경 알림(TLCA)’ 기능도 지원한다.

전후방에 QHD(Quad HD) 화질을



답재, 실시간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성능 향상과 새로운 IQ (Image Quality) 테크니컬 튜닝으로 이전 QXD 시리즈 제품보다 낮고 밤, 계절의 변화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사고 정보 및 정황에 대해 식별력을 높였다.

이밖에도 ‘아이나비 QXD1’은 ▲실내 온도 감지 및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스스로 감지해 초저전력 주차 모드로 변경하는 ‘초저전력 시스템’ ▲메모리 포맷이 필요 없는 ‘포맷프리 2.0’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주행거리 복합 205km, 도심 233km
서울시 기준 보조금 총 647만원

국내 자동차 시장에 2000만원대 전기차가 출시된다.

기아는 경형 전기차 ‘더 기아 레이 EV’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레이 EV는 중국 CATL이 공급한 35.2kWh 용량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했다. 공기역학 성능을 높이는 배터리 전방 언더커버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205km, 도심 233km다. 충전시간은 150kW급 급속 충전일 경우 40분, 7kW급 완속 충전은 6시간이다.

동력성능은 최고출력 64.3kW, 최대토크 147Nm다. 가솔린 모델(최고출력 76마력, 최대토크 95.1Nm)보다 나은 주행 성능을 갖췄다.

또 오토홀드를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고 모든 좌석을 접는 ‘폴 플랫’ 기능과 장시간 전기장치 사용이 가능한 유틸리티 모드가 적용됐다.

트림별 가격은 4인승 승용 라이트



더 기아 레이 EV.

2775만원, 에어 2955만원이다. 2인승 벤의 경우 라이트 2745만원, 에어 2795만원이며 1인승 벤은 라이트가 2735만원, 에어가 2780만원이다. 서울시 기준 전기차 국고 보조금 512만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35만원을 더하면 4인승 승용 라이트 트림은 2128만원, 4인승 승용 에어 트림은 2308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레이 EV는 경형 전기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면제된다. 개인·법인 사업자(일반과세자 한정)는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에 ‘甲질’…브로드컴, 과징금 191억

공정위 “우월지위 이용 계약 강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우리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위해 채택한 경쟁사에 대해 ‘중요스러운 경쟁자’로 칭하며 자신과의 장기 거래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일반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Long Term Agreement) 체결을 강제하는 등

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2019년 12월부터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독점적 부품 공급상황을 이용한 장기계약 체결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반도체 등 핵심 기반 산업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